



# 봉사로 즐거운 방학

올 여름 방학 복지관 봉사 아때요!

방학이라 하루 중일 컴퓨터 게임과 TV에만 빠져 있는 우리 아이. 올 여름 방학엔 자연과 더불어 뛰놀면서도 뭔가 뜻 깊은 일에 참여하고 싶다면 불교계 복지관이 마련한 봉사캠프를 추천해보자.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장애아동들과도 스텝없이 뛰어놀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세대와 장애의 '벽'을 허물게 되는 것은 물론, 봉사활동 인증서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일거양득이다.

## 불교계 복지관 봉사 캠프 다채...세대·장애의 벽 허물고 공감대 형성

복지관이 마련한 여름캠프 중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지역의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장애 어르신과 함께 하는 봉사캠프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3세대 통합 여림자원봉사학교-TOP GOAL' 행사를 마련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자원봉사학교는 8월 7~9일까지 서울간 청소년들이 어르신과 함께 급식봉사 등의 자원봉사를 체험하고, '세대교감' '소감나누기' 등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비 1만원.(02)739-9501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8월 17일까지 관내 중·고등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제13차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를 개최한다. 1주일 단위로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자원봉사학교에서는 관내 무의탁 어르신 가정과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 말벗되기, 안마·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친다.(02)385-1351

승가원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8월 2~3일 청소년들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홈스테이를 마련했다. 8월 14일에는 지역사회 환경미화를 위해 한솔마을 7단지 자와 분당구 탄천 일대를 청소하는 봉사활동도 마련되어 있다.(031)716-4215

부산 영도구노인복지관은 지역 거주 청소년들이 재미있고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1기 청소년 봉사단 FLY'를 조직한다. 봉사단에 참가한 학생들은 8월 31일까지 팀별로 경로식당에서의 급식 봉사, 경로당 주거환경 개선,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의 원예치료 및 음악치료 보조,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및 밀반찬 배달서비스 등의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051)417-6344

마산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8월 13~14일 중증장애인시설인 삼진강 사랑의집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시설견학 및 환경정리, 입소자들과의 나눔을 체험하는 자원봉사 캠프를 마련했다.(055)231-8017

서울 목동청소년수련관에서는 8월 1~3일 중학생 봉사학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지난해 개최한 여름환경자원봉사학교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어르신들과 어울려 조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노인복지센터.



장애 비장애 아동이 함께하는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여름 캠프 중 희방산 자연생태탐방 현장. 사진제공=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

동 '음식으로 나누는 사랑'을 개최해 참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가지고 노인시설을 찾아가는다. 8월 8~9일에는 고등학생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점토공예 교육을 받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02)2642-1318  
이처럼 방학 중 봉사활동에는 장애를 앓고 있는 친구나

이웃과 어울림으로써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껴보는 봉사캠프도 마련된다. 장애·비장애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삶을 배우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다.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제19기 '친구야 놀자'를 개최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피자를 만들고 민속박물관도 관람하며 즐거운 일정을 보낼 계획이다.(02)989-4215

서울 구로청소년수련관(02-852-0525)은 8월 7~10일 정신자제장애인시설인 경기도 가평 '가난한 마음의 집'에서 봉사캠프를 열고, 영주시장애인복지관은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여름통합계절학교를 개최한다. 폐품 재활용, 장애 체험 물총놀이, 소백산 죽령길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054)633-6415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8월10일까지 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여름방학교실을 열고 생활요가, 래프팅 체험, 별자리보기, 집단미술활동, 비누 만들기, 농촌문화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033)643-1801  
이 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을 기다리는 복지관도 있다.

서울 공동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신나는 자원봉사학교-통하는 우리'를 개최해 8월 2일까지 분야별 봉사활동을 펼치고, 8월 3~4일에는 방과후교실 아동과 함께하는 캠프도 개최한다.(02)2613-9367

서울 김음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년 자원봉사단 25기를 발족해 8월 2일까지 '학교폭력! 이젠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자원봉사를 진행한다. 청소년 폭력 및 예방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및 연합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사회성을 향상한다.(02)985-0161

부산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은 8월 18일까지 지역 청소년들이 복지관 청소, 목거 어르신 식사배달, 프로그램 보조 등을 체험하는 자원봉사 학교를 연다.(051)363-2063

여성평기자 snoopy@buddhapia.com



## 44. 다도(茶道)

언젠가 일본 TV 방송사에서 한국의 차 문화를 방송하기 위해 동아시아 아차문화연구소로 인터뷰 요청이 왔다. 내용은 한국 전통 차에 대한 것으로 첫 질문이 '한국에서 다도(茶道)는 어떤 것인가?'였다. 우리는 우선 차 한 잔을 건넸다. "우리 차 한 잔 드시지요. 좀 뜨겁지요?"라고 말을 건네자 그들은 일본의 차 맛과는 다르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 한 잔의 차 맛이 다른데 여지 다도가 같을 수가 있겠는가.

사실 한·중·일 모두 다도(茶道)가 있다. 차 마시는 것을 도(道)로 발음시킨 것은 중국의 다인(茶人)들이다. 이것이 한국과 일본에 전파 되

과 정기가 서로 어우러지니, 이와 같아야 다도가 지극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 차 한 잔을 기울이니 거드랑이에서 바람이 일고 몸이 가벼워져 이미 신선의 세계를 난다고 하였다. 초의 선사(草衣)는 차를 통하여 자연과 하나가 된 세계를 경험하려 하였다. 이것이 한국의 다도(茶道)이다. 불교의 근본사상인 중도(中道)를 바탕으로 다선일미(茶禪一味) 정신을 실현하여 전통적인 선림(禪林)의 다풍(茶風)을 체득하고자 했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중정(中正)의 상태가 도(道)이며 이것을 다도(茶道)라고 한 것이다.

한국의 다도는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시원한 산과 맑은 물 같은 자연환경 속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것을 즐기니 이것이 한국인

##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중정의 상태 차는 정신의 음료이며 수행 위한 매개물

면서 그 나라의 풍속에 맞게 토착화되었다. 한국은 일찍부터 차를 마시는 풍속이 있었으나 그것을 다도라 부르지는 않았다. 고승이나 문인들은 차를 마시며 시를 노래하고 세상 근심을 잊



단원 김홍도(1745~?)의 <초원시명도(蕉園試茗圖)>. 간송미술관 소장.

고려 했고, 맑은 정신을 추구했으니 이것이 한국의 다도가 아니겠는가. 추사 김정희도 차를 마시고 난 후의 최고의 경지를 '전다삼매(煎茶三昧)'라는 시로 남겼다.

'고요히 앉아 선경(禪境)에 드니 반나절이 지나도록 차 향기 처음처럼 피어난다. 신묘함이 일어나(妙用時) 물 흐르고 꽃이 피듯...'

차를 마시고 난 후 삼매의 경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차의 정신세계인 다도에 이른 것이다. 초의 선사가 <풍다송>에서 다도(茶道)에 대해서 말하길, 차를 팔 때는 오도함을 다해야 하고, 만들 때는 정성을 다해야 한다. 물은 진수(眞水)를 얻어야 하고 차를 우릴 때는 불과 차가 서로 조화되어야 차의 진실함

의 정신세계요, 자유로운 기질이다. 무질서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요, 자연과의 동화이다. 종교인에게 다도는 수행의 방편이고 예술인에게는 승화의 경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생활인에게는 자기를 지키려는 참모습일 것이다. 이처럼 차는 하나의 정신의 음료이며 자기 수행을 위한 매개물이다.

요즘 삶의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차를 마시는 방법도 다양해졌으니 다도 역시 좀 변화된 듯하다. 하지만 본래 다도란 일정한 형식이 없다. 공부하는 수행생에게 한 잔의 차가 잠을 깨우고 집중력을 주었다면 이것이 도(道)요, 정성스럽게 우린 차가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이것이 도(道)가 아니겠는가.

일찍부터 차가 지닌 성품을 군자와 같다고 한다. 아무리 차의 본성이 군자와 같지만 정성이 담기지 않은 차는 그 본성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좋은 차, 좋은 물, 정성스